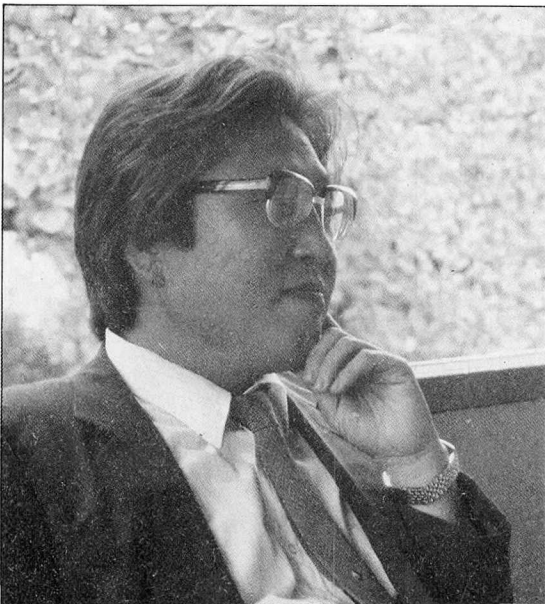


책으로 세우는 한 비평가의 동상

문학평론가 故 김현씨의 전집발간작업 추진돼



지난 6월 타계한 문학평론가 김현씨의 전집 발간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모두 15권 규모인 이 전집은 비평이론, 작가작품론, 국문학 및 불문학 관계이론과 함께 에세이와 기행문, 독서일기 등에 이르기까지 그가 생전에 남긴 모든 글들을 집대성한다는 점에서 김현문학의 문학사적 자리매김을 위한 한 정초작업으로 평가된다.

고 김현씨.

지난 6월 27일 타계한 문학평론가 김현씨(본명 金光南, 서울대불문과 교수)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작업과 함께 고인의 유고들과 생전에 발표한 작품들을 아우르는 전집간행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그동안 각종 문예지들에 유고들이 산발적으로 발표되었을 뿐 '김현사후' 충격의 파장이 채 가시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데 비해, 최근에 들어서는 고인이 생전에 몸담았던 문학과지성사를 중심으로 김현과 그의 방대한 문학세계를 정리하는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고인의 제자인 문학평론가 정과리씨가 엮은 「전체에 대한 통찰」(나남)은 타계전부터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사후에야 출간된 것으로, 70·80년대에 쓴 작가론과 작품론 35편을 비롯해 황지우·이성복씨의 회고와 엮은이의 해설을 실은 비평전집이다.

계간 「문학과 사회」 겨울호는 특집으로 정과리·성민엽·황현산씨의 '김현비평론'과 김병익·이인성씨의 회고, 그리고 출간을 염두에 둔 기록으로 밝혀져 화제가 됐던 일기의 일부와 함께 홍정선씨가 집필한 연보를 수록하고 있다.

이들 선집과 특집기획은 주로 제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내부적인' 평가작업이라는 의미에서 앞으로 '넓고 깊은' 김현 문학세계를 정리한 이른바 '김현론'이 어떻게 자리매김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회고의 글들은 20여년에 걸친 '문지'와의 동행기를 비롯해, 이미 예견된 죽음을 받아들이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과 그것을 지켜

보는 주변사람들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어私人으로서의 김현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밖에도 계간 「문예중앙」 겨울호는 그의 유고 시평인 「말들의 풍경」을 싣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의 미발표 원고들을 '단상'이란 제목으로 연재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은 그의 전집발간작업이다. 대학재학 시절이었던 1962년 「나르시스 詩論」으로 등단한 이래 전공인 불문학 뿐만 아니라 국문학과 실재비평에 있어서도 수많은 노작들을 쏟아냈던 그의 왕성한 활동의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적잖은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이 중론.

첫 저서인 「존재와 언어」를 비롯해 「문학과 유포피아」「젊은 시인들의 상상세계」「책읽기의 괴로움」「분석과 해석」 등의 평론집과 「한국문학사」「한국문학의 위상」 그리고 국문학관계 이론서들, 「현대 프랑스문학을 찾아서」「프랑스비평사」 등의 불문학관계서와 그 연장선상에 서 있는 「체네바학과연구」「르네 지라르 혹은 폭력의 구조」「미셸 푸코의 문학비평」「시칠리아의 암소」에 이르기까지 그가 연구작업과 글쓰기를 위해 쳐놓은 그물은 문학 전반을 망라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문화의 고고학」이라 평가하는 성민엽씨는 "그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이념과 풍속의 괴리로 파악하되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그 현실을 우리 자신의 삶으로 선택하여 도전한다는 '근대적 의지'를 일구었다"고 말한다.

현재 문학과지성사(대표 김병익)에서는 12명으로 구성된 전집편찬위원회를 구성해 자료수집은 홍정선·정과리씨가, 편집은 김치수·이인성씨가 각각 분담하고 목록작성작업을 진행중이다.

내년 1주기에 맞춰 1차분을 출간하고 3년후에 완간할 예정인 이 전집은 총 15권으로 기획, 바슐라르·골드만 등의 번역을 제외한 지금까지 나온 단행본들과 그밖에 산재해 있는 글들을 모아 주제별로 엮어낼 계획이다. 각 주제별로 대략 살펴보면, 비평이론·작가작품론·문학사·국문학관계이론·불문학관계이론·에세이와 기행문·독서일기 등으로 분류되며 별권으로 그에 대한 비평론을 모을 예정이다.

고인의 오랜 동료로 12월12일 창사 15주년을 맞은 '문지'를 함께 일구어왔던 김병익씨는 자신들을 향한 '문지사단' 혹은 '김현사단'이라

는 명명에 대해 "우리들을 짊고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고인의 말로 자신의 생각을 대신 하년서, 이번 전집발간이 "무형의 비평가 동상을 세우는 작업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배출한 평론가와 작가들을 통해 「문학과 지성」「우리 세대의 문학」「문학과 사회」로 이어지는 나름의 세대적 진화과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고 자평하는 김병익씨는 유난히 풍성했던 올해의 출판물들을 되돌아보며 내년은 중수를 줄이는 한편 김현전집발간에 본격적으로 착수, 김현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한 작업에 많은 비중을 두게 될 것이라고 한다.

문학과 지성사는 창사기념으로 '문지시선'을 포함해 5백여종에 이르는 도서목록을 펴낼 예정이며 전집발간 전에 「분석과 해석」(1988) 이후의 김현평론들을 모은 「말들의 풍경」을 출간한다.

— 정소연 기자

뉴스

결코 '늪지 않는' 우리출판의 老舖

창립 45주년 맞은 을유문화사

해방되던 해인 1945년 을유년에 창립된 이래 민족문화의 재발견과 관련된 꾸준한 기획출판으로 한국출판의 名門社로 성장해온 을유문화사(사장 정진숙)가 지난 12월1일 창립45주년을 맞이했다. 창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을유를 지켜오면서 출판계의 산 증인으로 불리고 있는 사장 정진숙씨는 "좋은 책을 내겠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부끄럽지 않은 책을 만들고자 했을 뿐"이라고 겸손한 소감을 밝혔다.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1945년 12월 「출판사업이 가장 중요한 建國사업」이라는 취지에서 전 한국은행 총재였던 민병도씨, 현 사장인 정진숙씨, 아동문학가 윤석중씨, 故 조풍연씨 등에 의해 을유의 역사는 시작된다. 「어린이 한글책」을 처녀출판으로 고집스런 양서출판의 대장정에 접어든 을유는 그동안 안팎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최초의 국어사전격인 「조선말 큰사전」(전6권)의 편찬을 비롯해, 「세계문학전집」(전60권)과 「세계사상전집」(36권) 「을유문고」

(267권)와 같은 '굵직한' 양서출판을 통해 독자적 위치를 점유했다는 것이 을유를 지켜본 출판계의 공동된 의견. 특히, 오랜 역사를 지닌 대개의 출판사들이 그 명맥만을 유지하는 것과는 달리 을유는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클 수밖에 없다. 북한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집대성한 「북한의 인식」(전12권) 시리즈라든가, 베스트셀러로서의 성가가 높은 「내 아들이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라」 등이 그 대표적 경우.

또한 창립 45주년과, 을유의 처녀출판이 아동물이었던 점을 기념해 펴낸 「손에 손잡고」(전10권) 시리즈로 아동도서출판에 새롭게 뛰어드는 변모를 보이고 있는데, 「세계사상전집」과 「을유문고」의 가로쓰기 전환 등 재조판작업 진행을 주관하고 있는 편집주간 고정기씨는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활발한 출판을 계속하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한다.